



아들의 이름



“어머니, 서준이 담입입니다.”
 “네.”
 “서준이가 점심시간에 혼자 책상에 앉아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선생님.....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앗,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3년 전 하늘로 떠난 아들의 중1 때 담임 선생님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다. 실수였다. 아마도 가르치시는 반에 같은 이름의 아이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럴 만도 하지..... 그해에 가장 인기가 많은 이름이었으니깐.....

아들의 이름은 이서준(상서 서瑞, 깊은 준濬)이다. “준” 자 돌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임신 중에 이름을 서준이로 지을까 준서로 지을까 한참을 고민했고 베이비 샤워 때까지도 결정을 못하다가 결국 서준이로 결정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될 줄은 몰랐다. 평생 너무 흔한 이름 “유진”으로 살아온 나는 내 아들만큼은 조금은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너무 특이한 이름에는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그래서 무난한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중 선택한 이름이 하필 그 이후부터 가장 인기 많은 이름이 되고 만다. “서준”이란 이름은 그 이후 10년간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 랭킹 5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쫄쫄이라는 나만의 애칭으로 불렀는데 혹시나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점차 부르지 않았더니 언제부턴가 나만 기억하는 애칭이 되어버렸다. 아이 코에 내 코를 바짝 밀착시키고 “쫄쫄아” 하고 부르면 늘 아이 이마에서 솟아나듯 달콤하고 끈끈처럼 고소한 향이 나곤 했었다. 엄마 눈에는 그림 같은 눈썹, 길고 짙은 속눈썹, 또

렷한 눈동자, 발란스가 좋은 코, 도톰하고 귀여운 입술 등 하나하나 아무리 뜯어보아도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예쁜 아가였다.

미국에서 태어나 4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준이란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 이름인 Brendan으로 불렀다. 한국 이름을 부를 때도 나는 서준이란 이름 대신 “준”이라고 불렀다. 외자 이름은 뭔가 더 근사했고 또 더 빠르게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스스로도 본인의 한국 이름이 ‘준’인 줄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1학년 같은 반에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전학 온 한국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처음 만난 한국 친구가 너무 반가웠던 모양이다. 본인이 먼저 가서 서툰 한국어로 “안녕? 나 쫄이야. 나도 한국 사람이야” 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아이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2017년 온 가족이 한국으로 오면서 아들은 비로소 이서준이란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전학 온 4학년 같은 반에 이미 이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아들은 미국 서준 줄여서 “미서”라고 불렀다. 웬일인지 아이는 미서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소지품에도 이름대신 미서라고 표기할 정도였다. 본인이 미국에서 온 교포라는 사실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곳곳에 서준이들이 있다. 우리 아들도 서준인데, 우리 조카, 누구네 동생, 누구의 친구, 하다못해 TV에서도 자주 들리는 그 이름. 바로 내 아들의 이름이다. 사람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고 대답 소

리를 듣는 것, 살아있다면 누구나 매일같이 하고 사는 그 당연한 것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불러도 아들은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조금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이름을 빛내며 살아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어디서든 아들의 이름이 들려오면 항상 가슴이 뿌듯하고 대견했다. 평생토록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들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아들을 잃은 아픈 슬픈 내 마음은 짙은 바닷속에 잠겨 헤어 나올 수가 없지만 이제 아들의 이름은 내 안에 아들이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소중한 상징으로 남았다.

이서준.
 가끔은 듣기만 해도 몽클하고 그 이름을 내뱉는 것조차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이지만 나는 이제 영원히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과 함께 살고 그 이름을 부르다 죽을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님의 “초혼” 중-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 자격조건 (Borrower Requirements)

- First Time Home Buyer:**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분 / 최근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
- Maximum Income Limit:** 융자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Orange County (\$235,000) / LA County (\$180,000) / 기타지역 (확인하기)**
- Minimum Credit: 680** 최소 크레딧 점수가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ll borrowers must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융자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매 완료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매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co-borrowers 혹은 co-signers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CalHFA에서 요구하는 홈바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 주택 다운페이
 20% 까지 정부 무이자 대출 보조금 지원 중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949.501.8555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